농림축산식품부 | 보도 설명자료 |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3.(금) 배포 시 배포 2026. 11. 13.(금)

배추, 쪽파 등 김장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 지방정부·공공기관·농협 등과 함께 총력 대응!

〈 보도 주요 내용 〉

11월 13일(금) 경향신문 「"속 탄다" 수확 포기로 썩어가는 배추밭」, 「"밤새 울었다" 쪽파밭은 이미 갈아엎어」, 조선일보 「김장용 배추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」 등 기사에서 배추, 쪽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확 포기 등 어려움을 보도하였습니다.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〈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〉

정부는 배추, 쪽파 등 김장채소류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수급안정 대책*을 발표하고, 소비확대, 출하조절, 농가 경영안정 등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.

* 대책발표: 「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(11.3.)」, 「김장철 배추 수급안정대책(11.11.)」

우선 정부는 농산물 최대 40% 할인행사와 더불어 '김장 한 포기 더하기' 캠페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, 농협,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김장 나눔 행사와 김치 단체 구매*를 확대하는 등 배추, 쪽파 등 소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

* 김치협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김치 공동구매 창구를 통해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김치 20% 할인 공급 신청 접수(대한민국 김치협회 누리집 http://kimchikorea.org)

아울러, 소비촉진과 함께 주요 김장채소 공급과잉 완화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수매비축, 출하정지, 가격 보전 등 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배추의 경우, 공급과잉 물량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11월 12일부터 가을배추 1만 톤을 수매비축하고,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3만 톤에 대해서는 11월 20일부터 출하정지*를 추진하여 시장 출하량을 조절하고, 김장철

이후에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경우 12월 하순부터 겨울배추 추가 수매비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* 출하정지 참여 농가에는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기준 경영비·생산비 중간값(4,471원/3.3㎡) 지원

또한 정부 수급조절사업('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')에 참여하는 겨울배추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가격 급락 시 평년가격의 80% 수준까지 가격 차를 보전하고,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가을·겨울배추 재배농가는 평년수입의 최대 85%까지 보장합니다.

배추 가격은 11월 상순 가격이 평년대비 31.7%까지 하락하였으나 정부 대책 추진에 힘입어 하락세가 반전되어 11월 중순 현재 평년대비 24.1% 하락한 포기당 2천원 초반대 가격까지 회복되었습니다.

쪽파의 경우, 지방정부 및 도매법인 등과 신속한 수급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지방정부(전남, 충남)에서는 '농산물 가격안정기금'을 활용하여 가격하락에 따른 가격차보전을 지원토록 하고,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및 도매법인에서는 재배농가 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락시장 출하 시 박스포장 의무화('26.1~)에 따른 박스비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한편, 쪽파는 단기 재배품목(45~60일)으로 현재 지역별 정확한 재배면적 파악과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정부·농협경제지주·산지농협 등과 '쪽파' 생산자 조직화 및 계통출하 기반 확충 등을 통한 수급조절 체계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향후에도 농식품부는 산지 작황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배추, 쪽파 등 김장채소류 가격 회복과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유통소비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배민식	(044-201-2231)
	원예산업과(배추)	담당자	사무관	김동욱	(044-201-2232)
	원예산업과(쪽파)	담당자	사무관	장성두	(044-201-223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